

# news

## 협회, <중소벤처기업 클린경영 실천포럼> 개최



- 1 클린경영 포럼에 참석한 200여 벤처 CEO 및 임원들
- 2 인사말에서 벤처기업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조현정 협회 회장
- 3 정부의 금융감독 정책을 설명하는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회장
- 4 회계분야 윤리의식 강화를 강조하는 김일섭 다산회계법인대표

협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IT벤처기업연합회(KOVA)와 합동으로 벤처기업의 윤리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클린경영 실천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포럼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서울경제신문사 등 20여 개 유관기관의 후원으로 중소기업 CEO·CFO 등 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뤄졌다.

벤처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위기관리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정부의 금융정책방향 설명과 벤처업계가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사안을 발표하고, 김일섭 다산회계법인 대표는 회계투명성 강화 및 위기관리 전략을 주제로 벤처기업의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 회계처리의 윤리의식 강화를 촉구하였다.

한편 김선현 부천대 교수는 222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중소기업 윤리경영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며 "벤처기업의 CEO들이 윤리경영의 도입이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고,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서규 픽셀플러스 대표는 NASDAQ에 상장하면서 겪었던 경험담을 통해 클린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조현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투명경영의 실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계적 기업경영의 대세"이며 "대한민국 벤처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투명경영과 회계투명성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강력하게 벤처기업 투명경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통부는 이번 포럼 개최 이후에도 개별 중소기업이 윤리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글로벌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